

Our Market Top

내 일에 특별한 동기부여를 찾아라

스티브 잡스는 말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일을 찾아라!”
그렇다면 당신의 출근길은 경쾌할 것이며
근무시간은 즐거울 것이다.

바로 그 주인공!
우리 회사 마켓 톱을 찾아 나섰다.
첫 주인공은 SK텔레콤을 대표하는
데이터 전문가, Data Insight팀의 전회원 매니저다.
지금부터 그가 마켓 톱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시간대는 언제인가?

출근 후 아침에 갖는 자기 계발 시간과 퇴근 후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지요. 특히 출근 직후인 8시 10분부터 업무 전까지의 50분은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고 싶어서 사무실이 아닌 18층 스마트 러닝센터에서 독서나 리서치 시간을 갖습니다. 공기도 쾌적하고 전망도 좋아 하루를 시작하기에 더없이 좋지요.

내 삶의 철학이 있다면?

‘동기부여를 잘하자!’입니다. 동기부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 부여는 물론, 업무의 결과물과 퍼포먼스에 큰 차이를 낳지요. 향을 감추기 위해 제아무리 여러 겹의 종이로 꽂꽂 싸맨다 해도 종이에 향이 배어나 오는 것과 같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석사과정을 마친 뒤 제가 맡은 첫 업무는 데이터 검색엔진 관련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

해서는 통계분석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지요. 이후 다시 학부에서 통계학 정규 과정을 밟았습니다. 과학적인 단계를 거칠수록 결과물이 탄탄해진다 는 즐거움이 저를 이끌었죠. 통계학을 공부하면서 자신감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운 좋게 빅데이터 붐이 일면서 엔지니어와 데이터 분석가와의 다리가 생겼고, 이후 데이터 분석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전문가의 업무가 궁금하다.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협업 종사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업무를 하다보면 또 다른 측면까지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분석하는 일을 하지요. 현재는 MNO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이는 해당 데이터에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생깁니다. 그 흥미로운 질문은 개인이 궁금했던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업무적으로는 원가절감과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켓 톱이 되기까지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롤모델이 없었다는 게 가장 힘들었던 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롤모델이 필요 없어졌지요. 돌이켜보면 그 시점은 스스로 제 기술과 경험으로 충분히 가치를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일을 즐기기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측정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생각보다 많은 업무의 성과를 조금만 고민해보면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측정 결과가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을 보유해야 합니다.

평상시 생활 속에서 데이터 분석,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저 역시 실생활의 의사 결정을 위해 데이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동향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추후 구매를 하기 위한 의사 결정 기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10여 년 전부터 스스로 학습한 것을 반추하는 공간으로 시작한 제 블로그(freesearch.pe.kr)의 트래픽 추이를 보고 어떤 블로그 호스팅 상품이 가장 좋은지도 판단하지요. 최근에는 심장박동수에 대한 데이터에 흥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